

# 광주 U대회 ‘지구촌 평화대회’로 치른다

## 市, 수단·시리아 등 분쟁 당사국 선수단 초청 강시장 “남북단일팀 구성 北도 긍정적 답변”

### 조호권 시의장 방북 제안

광주시가 2015 광주세계육상선수권대회(이하 광주 U대회)를 ‘지구촌 평화 대회’로 치르기 위해 남북 단일팀 구성에 주력하고 전 세계 분쟁 당사국 선수단을 초청하기로 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5일 오전 광주 U대회 조직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U대회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분쟁 당사국인 수단, 남수단, 이스라엘, 시리아, 팔레

스타인,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등 7개국의 선수단을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에 대해서도 “대내적으로 남북단일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UN과 협력을 통해 북한에 우리의 뜻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남북단일팀 구성에 대해) 북한에서도 긍정적인 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기문 UN 사무총장, 램페 UN 스포츠특별보좌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

를 받으며 추진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또 광주 U대회가 국내 첫 흑자 국제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시장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과 협의회 경기장 시설 기준을 완화·조정하고 일부 프로그램을 축소해 현재까지 1309억원을 절감했다”면서 “후원사, 광고권 모집 등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수입을 극대화해 흑자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호권 광주시의회 의장은 이날 광주 U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방북을 제안했다. 조 의장은 제223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광주 U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남북 교류촉진을 위해 광주시와 시의회가 공동으

로 나서야 할 때”라며 “정부에 방북 승인을 요청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광주시, 시의회,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돼 남북 공동 성화봉송 및 공동 입장, 합동공연단 구성, 응원단 파견 등의 실무논의를 위한 가칭 ‘2015 광주세계육상선수권대회 북한참가추진단’ 구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특히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면서 남북 간 해빙의 물꼬가 트였다”며 “광주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북한주민 접촉 등을 위한 방북을 공식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잘 해 봅시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할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이 열린 5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덕형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왼쪽)과 북한 박용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이 합의문을 교환한 뒤 악수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 “광주·전남, 우주항공·문화관광 클러스터 육성을”

### 광주·동남·서남권역별 개발

### 한은 광주전남본부 보고서

광주·전남지역을 우주항공과 문화관광을 연계한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본부장 나상욱)는 5일 초당대학교 윤용현 교수(항공운항학과)와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 조세형 과장이 공동연구한 ‘광주전남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방안’ 주제의 보고서에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스왑(SWOT) 분석 결과 광주·전남지역을 우주항공산업·문화·관광 집적지역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지역은 국내에서 우주항공산업 비중이 크게 낮은 데다 핵심주도기업이 없다는 취약점이 있지만 나로우주센터와 항공센터 등 우주분야의 발사체 관련 기반시설이 설치돼 있고 무안국제공항과 풍부한 관광자원, 청정자연 및 해양환경 등은 관광에 유리한 입지조건 등 강점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향후 정부의 우주항공산업 육성 의지로 볼 때 기존 우주항공산업의 우위 지역인 부산·경남지역과의 차별화 전략을 추진할 경우 우주항공 관련 산업 개발에 상당히 유리

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광주·전남지역은 남해안 선벨트로 세계적인 해양관광명소로 조성될 계획인데다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의 선도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어서 과학과 문화가 공존하는 우주항공 해양 테마존 육성에 적지로 평가됐다.

권역별 세부 추진전략으로는 광주권은 대학과 연구소, 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R&D산업 수행 및 첨단우주항공기술과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해 지원하고 전남 동남권은 고흥우주센터와 항공센터를 중심으로 우주항공시설 및 교육·관광·문화시설을 집적화시키는 것이다.

무안·산안 등 서남권은 무안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물류 및 항공정비단지조성, 비행교육원 운영을 통한 항공전문인력양성과 항공해양관광 특구의 솔라시도(SolarSea-Do) 조성 등 우주항공해양관광산업의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전략이다.

우주항공 클러스터 사업과 문화관광부문의 연계강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박물관이나 과학관 차원의 콘텐츠 도입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우주항공분야 마니아(미래 전문인력)와 일반 방문객 시장을 구분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우주항공과 문화관광을 연계한 클러스터의 대표 모델로 미국 케네디우주센터, 프랑스의 퐁루즈 등을 들을 수 있는데, 이들은 관광객의 체험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확보해 체험관광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교육경력 없이 교육감선거 출마 가능

### 여야 잠정 합의... 다음 재보선부터 ‘경력 3년’ 적용

여야는 5일 오는 6·4지방선거 교육감 후보에게 교육경력을 요구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위원 논란으로 제동이 걸린 때문이다.

여야는 이번 6·4 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육경력 요건을 없애지만, 대신 앞으로 치러지는 교육감 재·보선부터는 정치개혁특위에서 합의한 ‘교육경력 3년’ 규정을 적용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6일 오후 법사위와 분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치개혁특위에서 의결되기도 교육감 후보 경력논란으로 처리가 지연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는 ▲공무원 선거 범죄·선거보조·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불공정 선거보도 등에 대한 처벌강화 ▲전과기록 등 후보자 정보공개 확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위위 설치 ▲선거투표시간 청구권 신설 ▲사전투표시간 연장 ▲국가기관·지자체·학교기관장에 대한 투·개표관련 장소 및 인력 협조 의무 부과 등 공직선거를 위한 12개 항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육감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후보자 이름을 순차적으로 바꿔가며 기재하는 ‘순환배열’ 방식의 투표용지 변경안도 포함됐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수를 각각 13명(비례 1명)과 22명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구 조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jpark@kwangju.co.kr

## 日 자살특공대 유서 세계기록유산 신청 논란

### “군국주의 죽음 미화 우려”

일본 가고시마(鹿兒島)현 ‘지란(知覽)특공평화회관’이 4일 태평양전쟁 말기 가미카제(神風) 자살특공대로 동원됐던 대원들의 유서 등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나미큐슈(南九州)시 소재의 지란평화회관에는 현재 자살특공대원의 유서, 사진 등 1만4000여 점이 소장돼 있는데, 이 가운데 본인 이름 등이 확인되고 직필로 쓰인 유서와 편지 등 333점을 2015년 세계기록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한다.

지란은 전쟁 중 육군 소년비행단 훈련 학교 등이 있던 곳으로 일본군은 전황이 불리해지자 이곳을 육군 최후의 특공기지로 삼아 자살 특공대원들을 태운 전투기를 대거

출격시켰다. 이와 별도로 교토부(府) 마이쓰루(舞鶴)시도 일본 패전 후 시베리아에 억류됐던 일본군 포로·인양 관련 자료를 다음 달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특공대원의 유서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시도는 많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전쟁의 비극을 보여주겠다는 취지에도 실제로는 군국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미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공대원이 죽음을 감수한 과정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점도 논쟁의 소지가 있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목숨 바쳤다는 견해도 있지만 일본 학자 오누기 에미코(大貫惠美子) 씨는 특공대에 관한 저서 ‘죽으려면 죽으리라’에서 가미카제 대원 대부분이 ‘지란’을 강요받은 젊은이라고 분석했다. /연희뉴스

## 청와대 새 대변인에 민경욱 전 KBS 앵커

청와대 새 대변인에 민경욱 전 KBS 앵커가 발탁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민 전 앵커를 새 대변인에 임명했다고 이정현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수석은 “민 새 대변인이 해외특파원을 포함해 다년간 방송기자이자 뉴스진행자로서 활동해온 분으로 풍부한 언론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국민에게 잘 전달할 책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2월31일 김형 전 대변인의 사퇴로 한 달여 간 지속돼온 대변인 공석 사태는 해소됐다.



하면서 국민과 소통을 증진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인연에 대해서는 “워싱턴 특파원 때 (박 대통령이) 잠깐 왔는데 그 외에는 인연이 없으며 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뉴스를 진행하면서 인터뷰를 한 경험은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jpark@kwangju.co.kr

**NEW**

그린알로에 “그린퍼맨 프로바이오-50” 출시!

살아있는 유산균 50억 CFU 프로바이오틱스로 장건강을 챙기세요.

**프로바이오틱스로 지키는 장 건강**

“그린퍼맨파이오-50”은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5종의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된 제품입니다. 부원료로 곡류혼합효소 발효분말 과일혼합효소발효분말 비타민C, 건조효모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린알로에는 단 1%도 중금속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합성보존료, 합성감미료, 합성착색료가 함유되지 않은 3무제품입니다.

**그린알로에** FOR YOUR HEALTH    고객센터 080-234-6588